

# 2018, 시리아에 희망을

2018년 현재,  
총 1,310만 명의 시리아인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시리아 안팎에서 총 580만 명의 어린이가  
우리의 도움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1,310만 명이

우리의 도움을 절실하게 기다립니다

서울시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전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10만 명이

국내실향민이 되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 시민 전체가 한꺼번에 집을 잃고 국내에서 떠도는 것과 같습니다

298만 명의 난민이

포위되어 도움의 손길이 닿지 못합니다

바르셀로나 시민 전체가 포위되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580만 명의 어린이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싱가폴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수의 어린이가 난민이 되었습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시리아 난민 어린이아들을 위한 구호, 교육 및 훈련에 사용됩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63-099071-02-101 김성태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9길 10, 영성빌딩 4층

전화번호: 02-596-3171 팩스번호: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보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시편41:1-2)

## 아시아(Asia)

### 1일(토) 북한(North Korea)

북한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많은 이들이 대기와 수질 오염으로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열악한 위생상황은 부족한 의료 서비스와 맞물려 주민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에너지 사용이 급증함에 따른 대기 오염물질 배출 증가로 주민들의 건강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또한 남한의 성도들이 북한 주민들을 돕고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 2일(일) 북한(North Korea)

북한의 변화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정권 유지를 위해 인권을 탄압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중단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북한이 우상숭배를 포기하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중단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루 속히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길 기도해 주세요.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하고 존중하는 인권개선 등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근래에 이루어지고 있는 외교적 대화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자연스럽게 반영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3일(월) 중국(China)

중국 정부가 기독교에 사회주의 사상을 배양하기 위한 일환으로 '성경 개작'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주장을 입증하는 문서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중

국 전역에서는 최소 수천 교회가 십자가 강제 철거와 기물 압수를 당했고, 성경과 십자가가 불태워지거나 예배당이 폐쇄됐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에게도 감금, 주거 퇴거나 퇴사, 개종 회유 등의 압박이 가해졌습니다. \*중국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전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4일(화) 미얀마(Myanmar)

기독교인은 보통 권력이나 영향력 있는 자리와 거리가 멀게 됩니다. 기독교 소수자에 대적하는 군사 첩보 활동은 공개적이며, 지난 10년간 3,000개가 넘는 기독교 마을이 불에 탔습니다. 교회는 등록 허가를 받지 못 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인식되어 괴롭힘의 대상이 됩니다. 1966년 외국인 기독교 사역자가 추방되면서 신생 교회는 성숙한 지도자나 기반시설이 거의 없는 채로 남겨졌습니다. \*고난과 박해, 고립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5일(수) 파키스탄(Pakistan)

아버지는 살해당했다. 딸은 결혼을 강요당했다. 가족들은 무차별 폭행당했다. 아들은 눈을 맞아 실명했다. 파키스탄에서 선량한 사람들을 겨냥한 폭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무슬림이고 피해자는 대부분 크리스천입니다. WWM는 파키스탄 곳곳에서 무슬림들의 크리스천을 겨냥한 폭력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최근 발생한 사건들을 알렸습니다. \*파키스탄에서의 무슬림의 광기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제거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 6일(목) 인도 & 네팔(India & Nepal)

인도 벵골(Bangal) 주 서부는 주로 네팔 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분리 독립을 원해,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잦은 폭동과 시위 때문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시위에 연루되어 피해를 입는 그리스도인의 수도 상당합니다. 또한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벵골 서부의 폭동이 잦아들고, 정치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1월호 동일)

### 7일(금)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부모의 신앙을 자식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북한과 같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무슬림 무장 단체인 탈레반 치하에 있는 일부 지역은 테러와 폭력에 찢겨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에서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350만명에 이르는 주민이 기근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슬람 세력으로 인한 차별과 폭력이 줄어 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1만 5천명(0.05%)으로 추정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 8일(토) 미얀마(Myanmar)

미얀마의 소수 기독교인 수백 명이 신앙을 제한하고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 받고 있습니다. 이 서약서에 서명한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금지되며 자신의 자택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허용됩니다. 현지 한 목사에 따르면 92명

의 라후 소수민족 기독교인들이 포로가 되었으며 수십 개의 교회는 폐쇄됐다고 합니다. \*미얀마 교회와 성도들이 인내와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9일(일) 베트남(Vietnam)

베트남 교회에 가장 긴급한 필요는 지도자 개발과 신학 훈련입니다. 기독교인이 많아지면서 잘못된 가르침과 신학적 오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훈련 받을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가톨릭 측에서 몇몇 신학교를 다시 열었지만, 모두 정부에게 감시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일하게 합법적인 개신교 훈련기관은 명목상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학과 건전한 리더십을 갖춘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현지 사역자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10일(월) 인도(India)

힌두교 조직들은 보다 강경하고 공격성을 띤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도가 힌두교의 전유물이며 기타 모든 종교를 인도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 해에만 '달리트'(기독교 하층민)를 겨냥한 범죄가 4만 건 이상 발생했다고 합니다. 13억 명에 달하는 인도의 전체 인구 가운데 약 2억 명이 '달리트'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힌두교 극단주의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도록 기도해 주세요.

### 11일(화) 인도(India)

전 세계에서 자살하는 여성 10명 가운데 4명 가까운 사람이 인도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인도여성이 이처럼 많은 이유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가부장적인 문화와 함께 조혼 제도를 꼽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인도 여성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은 만 15세가 되기 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신음하며 사라지는 인도 여성들의 비참한 삶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 중동(Middle East)

### 12일(수) 터키(Turkey)

EU에 가입하기 위해 이슬람교가 아닌 종교를 규제하는 법을 완화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기독교인들은 끊임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종종 부당하게 봉쇄되거나, 대부분 교회에서 감당할 수 없는 조건을 요구 당하며 부담을 짊어지기도 합니다. 예배 공간을 빌린 경우에도 염려하는 주인들이 쫓아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 나라에 존재하는 편견, 종교 교육은 기독교인을 괴롭히도록 선동하는 역할을 합니다. \*터키에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찾아 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 13일(목) 시리아(Syria)

시리아 동부 국경 지역에서 미군 주도 국제동맹군의 공습으로 민간인 60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시리아 국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11.14일). WFP



는 시리아 가구 44%가 식사 횟수를 줄였고 어른들의 35%는 어린이들을 먹이기 위해 식사량을 줄였다고 합니다.
\*생존이 힘겨운 이 나라와 시민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루 빨리 평화가 찾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UN과 세계열강들이 함께 시리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14일(금)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교의 발상지이자 본거지입니다. 메카는 수십억 명의 무슬림과 이슬람 문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영적 영향력의 중심지를 뒤흔들어 사람들이 그분의 주 되심을 알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영적 돌파구가 이곳에 마련된다면, 이슬람교와 무슬림이 변화할 것입니다.
\*세계에 이슬람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물결이 불도록 기도해 주세요.

#### 15일(토) 예멘(Yemen)

예멘은 무슬림이 인구의 99%를 차지하는 나라로 이곳 국민들은 거의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예멘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폭행을 당하고 직장이나 가족을 잃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며, 어쩌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멘의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자신들의 집과 밖에서 소그룹으로 비밀리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나라에 존재하는 끊임없는 위협과 낙담, 아픔, 고립 속에서 신자들이 영적 성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16일(일) 이란(Iran)

이슬람 수니파 단체 IS(이슬람국가)의 박해로 중동의 기독교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지만, 중동의 기독교는 순교적 각오로 맞서면서 아직 강한 생명력을 보이고 있고, 꿈과 환상을 통해 회심하는 무슬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종 사실이 주위에 알려진 사람들은 가족과, 사회, 특히 직장에서 박해와 직면합니다. 정부기관이든 민간 기업이든 상관없이 고용주들로부터 직장 안에서 괴롭힘과 차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란의 그리스도인들과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 17일(월) 이라크(Iraq)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한 박해의 규모는 대량학살 수준이며, 이슬람국가(IS)의 위협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많은 군사력을 동원해 IS를 몰아냈으나, 이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위협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언어 말살, 가정 파괴, 이라크 추방 등 ‘체계적인 폭력’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2003년 당시 이라크의 기독교 인구는 150만 명에 이르렀으나 현재는 약 25만 명으로 급격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라크 기독교 박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 18일(화) 리비아(Libya)

지난 6년여 간 계속된 내전의 상흔이 선명합니다. 악질적인 독재자를 축

출하고자 했던 혁명이 혼란으로 이어지면서 국민들은 큰 좌절과 허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리비아 국민들은 그토록 원했던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기는커녕 어느 때보다도 깊은 분노와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무정부상태와 혼란스러운 정국이 계속되면서 이슬람주의자들이 더욱 득세하기 시작했고, 기독교인들의 설 자리는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리비아의 정세 안정과 숨죽이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 19일(수) 레바논(Lebanon)

레바논 역사는 지난 70년간 내전, 외국의 간섭, 인질 납치 등 비극적인 사건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충분히 안정되어야 나라를 회복하고 재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선교사가 감소하고 국내 지도자가 해외로 이주하면서 많은 교회가 목회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정치적 안정과 기독교 주를 닮은 교회 지도자들이 배출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 20일(목) 카타르(Qatar)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카타르로 많은 사람이 이주해 옵니다. 그러나 개종 금지법 때문에 기독교인은 여러모로 제약이 많고, 단순 노무직에서 중역 경영인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인이 일할 기회를 찾기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을 위해 유입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가 빈번한 곳입니다.
\*카타르 내 기독교인들의 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또한 해외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 중앙아시아(Central Asia)

#### 21일(금)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우즈베키스탄은 헌법상으로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운동가들은 우즈베키스탄을 세계에서 신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억압 받는 나라 중 하나로 꼽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적극적 복음 전도를 하다, 10년형을 받고, 7년만에 석방된 사람도 있습니다.
\*강력한 독재정치에서 비롯된 기독교 박해의 억압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 22일(토)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

동방정교회를 제외한 기독교 교단의 활동, 심지어 기독교 존재 자체에 대한 적대감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증가하였습니다. 거의 모든 외국 기독교인은 추방당했고, 몇몇 토착민 목회자는 망명해야 했고 매맞는 수모를 겪었으며 심한 벌금을 물거나 투옥되었습니다.
교회는 위협당하고 모임은 금지되었으며, 교회는 등록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용기 있게 굳건히 서며, 이 나라에 있지 않은 기독교인이 이들을 위해 중보하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0월호와 동일)

## 아프리카(Africa)

#### 23일(일) 에리트레아(Eritrea)

유럽에 난민 보호를 요청한 에리트레아 국민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2.13%에 이릅니다.
‘아프리카의 북한’이라는 별칭처럼 에리트레아와 북한의 상황은 실제로 많이 닮아있습니다. 1인 독재와 종교의 자유가 없이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국민들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탈출을 감행합니다.
정권이 심어 놓은 스파이 때문에 주민들이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또한 3,000명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갇혀 있습니다.
\*자유와 평화가 이 곳에 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 24일(월) 나이지리아(Nigeria)

크리스천들의 생지옥 이라고 불리는 나이지리아에서 이번엔 목사 가족이 불에 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이슬람교를 믿는 유목민족인 풀라니족으로 추정됩니다. 칼과 소총 등으로 무장한 이들은 교회를 둘러싼 뒤 총질을 해대며 목사 가족을 해쳤습니다.
이어 교회에 불을 지른 뒤 교회가 다 불타버릴 때까지 생존자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 받는 주의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 25일(화) 이집트(Egypt)

이집트 중북부 민야 지역에서 콥트교도가 탄 버스 3대에 수니파 무장조직 일당이 총격을 가해 최소 7명이 숨지고 약 20명이 다쳤습니다.
이슬람 수니파가 대다수인 이집트에서 콥트 교도는 10%(900만 명) 정도를 차지합니다. 지금까지 IS의 테러로 사망한 이집트의 콥트교도만 100명 이상입니다.
IS는 콥트교를 이단 종교라면서 자신들의 원리주의적 종교성을 과시하고 공포를 조장하려 합니다.
\*이집트 내 그리스도인의 안전과 삶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26일(수) 소말리아(Somalia)

수년간의 전쟁으로 이 나라의 경제적 · 사회적 · 신체적 건강상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75만명이 넘는 사람이 국내에서 추방되고, 전쟁으로 50만명이 죽었습니다. 전쟁과 쿠데타, 특히 엄격한 형태의 이슬람 때문에 해외에서 원조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밀수업자, 노상강도, 해적, 테러범에게 은신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취약 층으로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소말리아의 질서와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 27일(목) 수단(Sudan)

수단에서는 정부가 교회나 교회가 경영하는 학교 등을 몰수하여 건물과 토지를 민간 사업가들에게 팔아 넘기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인들은 이를 막기 위해 몰수 집행하려는 관리들과 충돌하게 됩니다.
한 법원이 교회 건물을 몰수 하는 과정에서 교회 장로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4명의 기독교인이 6개월의 징역과 거액의 벌금을 부

과 받게 되었습니다.
\*수단 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안전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28일(금) 중앙아프리카공화국(CAR)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도시 알린다오에서 기독교도와 무슬림의 충돌로 최소 37명이 숨졌습니다. 앞서 현지 교회 건물이 불에 타는 사건이 있었고, 이후 기독교인들과 무슬림 민병대가 거세게 충돌하면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날 당시 성직자 한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밝히자 기독교도들과 무슬림들 사이에 유혈 충돌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망자 37명 외에도 주민 수천 명이 충돌을 피해 대피하는 등 2만여 명이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인들과 무슬림간의 오랜 분쟁이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 29일(토) 지부티(Djibouti)

무덤과 건조하면서도 자주 습해지는 환경에서 사역을 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육체적, 영적으로 놀리고 경제적으로 격차가 크며 인종 차이로 긴장하고 기독교인이 매우 적어서 사역자들은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이 나라에 필요한 교육, 공중보건, 문서, 성경 번역, 문맹 퇴치 사역, 청년 사역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인근 나라와 종족 가운데서 장기 사역자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 30(일) 에티오피아(Ethiopia)

수백만 명이 만성 영양 결핍에 시달리지만 외국의 식량 원조에 더 의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종족별 · 지역별 농업 기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사역자를 후원하고, 구조물과 시설물을 확충하여 사회에 만연한 깊은 빈곤을 해결하는 사회경제 프로그램이 절실합니다.
교회는 장기적 전략을 갖추지 못하고 박해에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 치고 있으며, 선교에 비전을 가진 교회는 3%뿐입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이 땅의 주민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 31일(월)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그리고 도우심 속에서 사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이사장 및 공동대표: 김성태 교수, 공동대표: 신현필 목사, 사무총장: 이종만 목사, 이사분들, 사역자들).
\*한국오픈도어가 전세계 핍박 받는 교회들을 위한 애타는 심정과 진심으로 기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후원자 분들과 기도용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